

'지식의 유목민' 사로잡은 농경민적 상상력

조앤 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김진경 | 시인·전통중 교사

컴퓨터에 빠져 있는 요즘 아이들은 '지식의 유목민'이다. 사이버 세계라는 초원에 들어가서 야생 소떼를 사냥하듯 필요한 지식을 사냥한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식의 유목민인 아이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것은 판타지 소설이라는 유목민적 문학양식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지식의 농경민적 요소를 많이 가진 점도 광범한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이다.



김혜원 옮김
문학수첩/A5신/236면 내외/7000원 내외

'컴퓨터에 빠져 있는 1200만의 아이들을 책벌레로 만든 책.' 이것은 최근 전세계적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는 <해리포터> 시리즈(《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해리포터와 비밀의 방》《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문학수첩)의 광고 카피다. 이 광고 카피는 정보화로 요약되는 급격한 시대변화에 대한 기성세대의 착잡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컴퓨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란 말 속에는 '아이들이 컴퓨터에만 빠져 책을 멀리하는 것은 문제다'는 염려가 숨어 있다. 그리고 그 아이들 가운데 '물경 1200만의 아이들이 책벌레가 됐다'는 말 속에 깊은 안도감이 담겨 있다. 참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아이들을 책에 가깝게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구나 하는 안도감이다.

지식의 농경민적 체계와 유목민적 체계

기성세대는 왜 아이들의 컴퓨터 문화에 대해 그렇게 염려하는 것일까? 지식의 매체로서 컴퓨터와 책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나는 지식의 매체로서 책과 컴퓨터를 '지식의 농경민적 체계'와 '지식의 유목민적 체계'로 규정하고 싶다.

일반적으로 책에는 지식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다. 그리고 책이라는 형태는 그 지식체계에 대한 존중심을 담고 있다. 따라서 책은 안정된 정착생활을 하는 농경민의 속성을 담고 있는 지식체계다.

컴퓨터의 사이버 세계에는 초원에 흩어져 있는 소떼들처럼 지식이 체계화되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 아이들은 '지식의 유목민'이다. 그때그때 사이버 세계라는 초원에 들어가서 야생 소떼를 사냥하듯 필요한 지식을 사냥한다. 그 사냥행위에는 지식체계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사이버 세계는 지식의 유목민적 체계다.

아마도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386세대까지는 대개 지식의 농경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아이들은 확실한 지식의 유목민들이다. 지식의 농경민들이 이런 변화를 어쩔 수 없이 인정하면서도 생경한 유목민들을 보면서 염려하는 건 어찌면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그 염려가 근거 없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중국 대륙을 수차례 정복했던 칭기즈칸으로 대표되는 유목민들은 한번도 중국 대륙을 지배했던 적이 없다. 오히려 거꾸로 한족에 동화돼 녹아 없어지곤 했다. 지식의 유목민적 체계가 갖는 한계

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생활화되는 시대에도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는데 책으로 상징되는 농경민적 지식체계의 중요성이 크게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점을 거의 본능적으로 간파하고 있는 부모들이 컴퓨터에 빠져 책을 멀리하는 아이들을 걱정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책을 완전히 멀리한다면 그 아이는 분명히 앞으로의 지식 기반 사회에서 주변적 위치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과의 관련성 잃지 않은 환상소설

그러면 이제 <해리포터> 시리즈가 어떻게 지식의 유목민인 아이들을 책으로 끌어들이는지 살펴보자. <해리포터> 시리즈는 우선 판타지 소설의 양식으로 씌어져 있다. 판타지 소설은 잘 알다시피 근래에 각광받고 있는 출판장르며, 이런 현상은 컴퓨터의 생활화와 무관하지 않다. 사이버 세계에서 지식은 그것이 발생한 현실과의 관련성을 잃고 독자화되며, 현실의 제약을 벗어나 자유롭게 조합된다. 예컨대 이우혁의 《퇴마록》(들녘)을 보면, 이집트의 '미라에 내려진 저주'라는 모티프가 그 지식이 발생한 이집트 문화라는 현실 관련성을 벗어나 한국에 실현된다. 그리하여 한국의 무속문화를 모티프로 해 설정된 인물인 퇴마사가 이 미라의 저주와 대결한다. 이런 점에서 《퇴마록》 같은 소설은 책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지식의 농경민적 체계와는 무관하다. 사이버 세계에서 지식이 존재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판타지적이며 이런 요소를 극대화한 것이 판타지 소설이다. <해리포터> 시리즈가 지식의 유목민인 아이들에게 널리 읽힐 수 있는 것은 우선 판타지 소설이라는 유목민적 문학양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판타지 소설이라고 해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퇴마록》류와는 질적으로 구분된다. 적어도 <해리포터> 시리즈는 《퇴마록》처럼 무원칙할 정도로 자유롭거나 황당하진 않다. <해리포터> 시리즈는 판타지 소설이지만 현실과의 관련성을 잃지 않고 있다.

첫째, 소설에 도입되고 있는 환상적 모티프들이 유럽문화권으로 제한돼 있다.

둘째, 환상의 세계인 마술사들의 세계가 바로 현실의 곁에 존재하며 때로는 현실세계와 뒤섞이며 관계 맺는다. 주인공 해리포터는 현실세계인 머글들의 세계에선 고아로 이모 밑에서 자라는 천덕꾸러기지만 마술세계에선 영웅이다. 마술세계는 현실세계에 대해 일정하게 비판적 의미를 갖는다.

셋째, 해리포터가 다니는 마술학교는 현실의 모습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 이 소설의 기본적인 갈등은 그 마술학교 출신의 정통 마술사와 흑 마술사 사이의 갈등이다. 그리고 선생들의 인물형이나 학생들의 인물형이 현실의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인물형을 여실하게 반영하고 있어 흥미를 끈다.

요컨대 <해리포터> 시리즈는 환상소설이지만 지식의 농경민적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현실 관련성이 이 소설을 《퇴마록》류와는 다르게 고전적 요소를 띠게 하며, 더 광범한 독자를 끌어들이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식의 카스트 제도' 강화될 위험성 있어

<해리포터> 시리즈가 《퇴마록》 같은 단순 오락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평가는 시기상조기도 하고, 내가 평가를 위한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한가지 기준은 나름대로 제시해볼 수 있겠다.

매일매일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그들이 정말 지식의 유목민이란 생각이 든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체계적인 지식에 대해 흥미도 존경심도 없다. 그렇다고 체계적인 지식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소수의 학생들이 호뭇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니다. 필요하니까 체계적인 지식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열정이나 정서적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 냉랭함 속에서 나는 문득 불길한 예감을 받는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지식의 카스트 제도'가 앞으로 자리잡아가는 건 아닐까? 책으로 상징되는 지식의 농경민적 체계를 충분히 소화한 소수와 그렇지 못한 다수가 더 심하게 차별화되는 사회 말이다.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민주화를 가져오는 측면도 있지만 지식의 카스트 제도를 출현시킬 위험 또한 없지 않다. 앞으로의 진정한 글쓰기, 진정한 교육이란 끊임없이 대중 속에 지식의 현실 관련성을 회복시키는, 그럼으로써 지식의 카스트 제도가 출현할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 같은 기준에서 볼 때, <해리포터> 시리즈가 만족할 만큼 자각적이지는 않다.●